



유럽·아시아 등 방송전문가 350여명 참석 국내 DMB 기술 ‘세계로 세계로’

글 권경희 기자

이 동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 활성화와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2회 DMB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달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ITU(국제전통신연합), ETSI(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 등 국제표준화기구 관계자들과 DMB 서비스 도입을 준비중이거나 검토중인 영국, 독일, 중국 등의 방송 전문가가 350여명이 참석, DMB 정책과 표준화,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첫날인 7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TU-R 멀티미디어 분과 브라이언 앨더스(Brian Aldous) 의장과 월드 DAB 포럼 쿠엔틴 하워드(Quentin Howard) 부의장 등이 참가해 DMB의 국제표준화 추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독일 바이에른주 방송기술연구소 및 영국의 DAB 방송 사업자 최고경영자가 나와 유럽의 DMB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중국 베이징 인민라디오방송 관계자들도 참석해 중국의 DMB 추진현황을 소개하는 등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DMB 도입 가능성이 확인돼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한층 밝게 했다.

둘째 날인 8일에는 DMB 서비스와 기술 동향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MBC, 독일 BMT(공영방송기술연구소), 영국의 BT(British Telecomm)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 주제발표자 17명 중 11명이 해외의 방송분야 최고 전문가와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돼 있어 지상파DMB에 대한 국제적인 지도도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아울러 심포지엄 기간동안 DMB 전시회도 개최돼 DMB 시연 및 제품전시를 통해 DMB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의 기업들의 제품개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DMB가 향후 전세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국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전문가들을 초청해 DMB 국제심포지엄을 권위 있는 국제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지상파DMB 국제표준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지상파DMB기술이 지난 4월 독일에 이어 중국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져 행사분위기는 한층 고무됐다.

"DMB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국 북경라디오방송 자회사인 위예롱 고위관계자가 한국지상파DMB 채택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북경라디오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DMB채택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지상파DMB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북경라디오방송국에서 지상파DMB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시연회에 참석한 북경라디오방송국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파DMB 단말기제조업체와 장비제조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북경라디오방송과 접촉하고 여러 차례 시연회를 가지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전해왔다. ☞